

화순팜, 매출 20억 돌파... 지역 농가 소득증대 '시동'

2008년 개설... 올해부터 郡 직영 온·오프라인 이벤트·홍보 강화 미니 파프리카·복숭아 등 인기 8월까지 매출 20억 돌파 성과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올해 매출 20억원을 돌파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매출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특색 상품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는 최고 매출 16억원을 달성했고 8월 말 매출 20억원을 돌파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설 이벤트, 새 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화순팜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복숭아, 샤인머스켓, 한우, 돼지고기, 장어, 보리굴비, 기정떡, 화순쌀 등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위탁운영했던 화순팜을 올해부터 군이 직영하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 회원 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게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매출 증대에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

를 만나고 화순팜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화순팜에서는 13일까지 '추석맞이 달달(月)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원)과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현진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화순팜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욱 도약하는 화순팜이 되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화순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첫삽 함평군, 2025년 10월 준공

함평군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신활력 혁신센터·농업인회관'이 첫삽을 뚫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착공식이 지난 3일 오후 함소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등 함평군 주요인사 및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각 농협조합장, 박종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 신활력플러스사업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상익 함평군수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시삽식과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0월 준공된다. 센터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청년농업인 교류센터와 체험·교육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향후 함평군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9월 '독서의 달' 맞이 행사 장성군립중앙도서관서 30일까지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연다.

4일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1일에는 '부모의 독서가 시작되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의 저자 박근모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학부모를 초청해 독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미래 경쟁력 창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같은 날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진진 마술 & 별문쇼'도 열릴 예정이다.

29일에는 샌드아트 '모래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공연이 펼쳐진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 샌드아트 동화를 감상하고, 아이들이 직접 샌드아트도 만들어 본다. 도서관 밖에는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앞마당에 텐트와 돗자리, 테이블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 '스릴만점 가상현실(VR) 체험'도 아이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독서의 달에 어울리는 전시도 눈길을 끈다. '전세계를 사로잡은 K(케이)-그림책'에선 해외에서 수상한 국내 작가의 그림책 15권을 만날 수 있으며 최영아작가의 '달토끼' 원화 전시도 열린다.

이벤트도 다채롭다. 독서의 달 행사 참여 후 인증 사진을 장성군 공식 SNS(에스엔에스) 계정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명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도서대출 정지회원들의 고민을 덜어줄 '연체 지우개!' 이벤트도 관심을 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도서관팀(061-390-849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도서관이 살아있다' 운영 27~28일 화순열린도서관

화순군(군수 구복규) 열린도서관은 27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한다.

4일 화순군 열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미니 동물원'과 '행복한 우리 가족 미니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서관 대강당(2층)에서 운영되는 '미니 동물원'은 화순군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포유류, 파충류, 조류 등 30여 종의 동물들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행사로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27일 '미니 동물원'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 관람 위주로 진행돼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28일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28일에는 다목적실(3층)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각각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동반한 8가족을 모집해 자연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가족이 함께 자연을 닮은 화분(테라리움)을 직접 만드는 '행복한 우리 가족 미니정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서관이 살아있다'의 모든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행복한 우리 가족 미니정원'은 화순열린도서관 홈페이지(hslib.kr)를 통해 10일 오전 9시부터 회차별 8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화순=김선중 기자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영광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등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영광군은 부정 청탁 등 부패 근절과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합동으로 부패 취약 시기인 인사철과 명절에 청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렴 캠페인에서는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경우 일체 선물 주고받지 않기 △추석 명절 선물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 가액 상향(5만원) 등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갑질 등 비위행위 금지 △편의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안내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곡성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했다. 패러글라이딩 프로그램은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 기차마을 일원에 위치하며 총 3개의 비행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베테랑 비행사와 체험을 할 수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기차마을, 외국인 200명 패러글라이딩 체험

"섬진강변과 산, 들을 내려다보며 활강하는 패러글라이딩은 곡성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데 최고입니다."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한 2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섬진강과 곡성의 풍광을 온몸으로 느끼며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극찬했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극찬한 '곡성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

은 예능 프로그램과 해외 TV에도 소개된 곡성의 대표 레저 프로그램이다.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유와 스릴, 모험을 4계절 내내 경험할 수 있다. 총 3개의 비행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최고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비행사와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관광객들은 이륙부터 비행 동안의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촬영해

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이일규 곡성 패러글라이딩 대표는 "곡성 패러글라이딩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패러글라이딩은 연간 12만 명이 체험하는 안전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최고의 레포츠다"며 "최고의 비행사와 함께 곡성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마을행복백신V6 양성 교육

군민 마을활동가 25명 양성 6일까지 활동가 추가 모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일 마을공동체혁신센터에서 '화순군 마을행복백신V6 양성 교육'을 개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복 백신을 투여하여 좀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화순군 관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희망하는 군민 25명이 선정되어 참여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의 이해 △달라진 주민자치 △소통과 공동체 △마을활동가 역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으로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수요일에 진행되며 전체 교육 80%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군은 교육을 마친 예비 마을활동가들에게 내년부터 주민과 함께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희망하는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6일까지 추가 모집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군민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화순읍 충의로 100)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061-379-343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